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4호 【루계 제26038호】 주제 107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한 세기적 만남

력사상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 진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과
공동성명 채택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의 쉐르사섬에서 조미 두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수뇌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시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 침체하게 대립되고 지속되어온 조미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풀장내고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수뇌분들의 확고한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금세기 최초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수뇌회담이 진행되게 된다.

2 번 으 로 계 속





1 면 에서 계 속

전세계가 하루하루 기다려온 세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싱가포르의 곳곳에는 수천명의 내외신 기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이날의 순간순간을 주시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 10분 속속들 떠나시어 회담장인 싱가포르 쎄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 도착하시었다.

조미수뇌분들께서 첫 상봉을 하시게 될 회담장 로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미합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었다.

현지시간으로 오전 9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상봉하시고 첫 악수를 나누시었다.

조선반도가 물로 갈라져 대립과 반목의 역사가 흘러온 70여년만에 처음으로 조미수뇌분들

이 회례를 향한 첫발을 내디디고 대화의 장에 마주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신 다음 담소를 나누시며 회담실로 향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트럼프대통령 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여기까지 와닿는 과정이 결코 험치는 않았다고 하시면서 과거의 역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지만 그 모든것을 과감하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적대적인 조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시었다.

조미수뇌분들의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이 진행되었다.

확대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김영철동지, 리수용동지, 외무상 리용호동지가 참가하였다.

상대측에서는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대통령 국가안전담당보좌관 존 볼튼,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가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며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측대표단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적대적과거를 불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대통령님의 의지와 열망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미합중국 트럼프대통령은 이번 수뇌회담이 조미관계개선으로 이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초부터 위하신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조치에 의하여 불과 몇개 월전까지만 하여도 군사적충돌의 위험이 극도에 달하였던 조선반도와 지역에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산생되었다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망국이 서로에 대한 리해심을 가지고 적대시하지 않는다는것을 약속하며 이를 담보하는 법적, 제도적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3 면 으 로 계 속

2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미쌍방이 빠른 시일안에 이번 회담에서 토의된 문제들과 공동성명을 리형해나가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이 제기한 미군유골발굴 및 송환문제를 즉석에서 수락하시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이 지역과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당면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미합중국 대통령은 이에 리해를 표시하면서 조미사이의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제재를 해제할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측이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시였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을 준수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시였다.

이날 조미수뇌분들과 쌍방회담성원들이 참가하는 오찬이 있었다.

오찬에서는 조미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조미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쌍방사이에 의사소통과 접촉매왕을 보다 활성화

해나갈데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오찬이 끝난 후 함께 산책하시며 친교를 두터이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와 미합중국 도널드 제이. 트럼프대통령은 력사적인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에서 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공동성명에 서명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세계는 중대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과 력사적인 문건을 채택한 기념으로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고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트럼프대통령은 적대와 불신, 증오속에 살아온 두 나라가 불행한 과거를 덮어두고 서로에게 리익이 되는 훌륭한 자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며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 조미협력의 시대가 펼쳐지게 될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였으며 트럼프대통령도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미국을 방문하여 주실것을 초청하였다.

조미수뇌분들께서는 이러한 초청이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를 쾌히 수락하시였다.

전세계의 열광적인 지지와 환영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은 조선반도와 지역에 도래하고있는 화해와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력사적흐름을 보다 추동하고 가장 적대적이었던 조미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으로 전환시켜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사변으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싱가포르 수뇌 회담 공동 성명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역사적인 수뇌 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심도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것을 확인하였으며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면서,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범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을 약속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것을 약속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 회담이 두 나라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는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리행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미수뇌 회담의 결과를 리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고위인사사이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싱가포르 공화국 수상이 축하편지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6월 12일 싱가포르공화국 리 시엔 퉁수상이 조미수뇌 회담의 성과를 축하하여 편지를 보내어왔다.

그는 축하편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역사적인 수뇌상봉이 성과적으로 종결된것과 관련하여 축하의 인사를 올리면서 김정은위원장을동지께서 도널드 트럼프대통령과 함께 서명하신

공동성명은 국적인 일보의 전진으로 되며 비핵화된 조선반도에 깃들게 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으로 향하는 장구한 려정에서 지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싱가포르는 이토록 중요한 수뇌상봉을 주최한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한다 하면서 국제공동체와 더불어 이번 수뇌상봉의 성과를 축하하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 상기합의를 리행함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축원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그는 김정은위원장을동지께서 마려 나만주변을 돌아보시는 등 싱가포르에서 유쾌한 나날을 보내시였을것이라고 믿으면서 가까운 앞날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본사기자

희세의 천출 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연구 보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4쪽에 즈음하여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 독보회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의 기간에 오스트리아, 앙골라에서 진행되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오스트리아 교오스트리아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청년소조 책임자와 성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명함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 대한 연구토론회에서 조선로동당을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명도 업적을 높이 찬양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

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로선을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현명하게 이끄시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사업, 세계화추진위업실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조선로동당의 자랑스런 투쟁력사를 광범한 대중속에 널리 소개선전하며 주체사상연구

보급사업을 보다 활발히 벌려 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앙골라의 여러 단위에서 진행된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 저작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고전적 저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그치자>》에 대한 독보회에서 참가자들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쌓아올린 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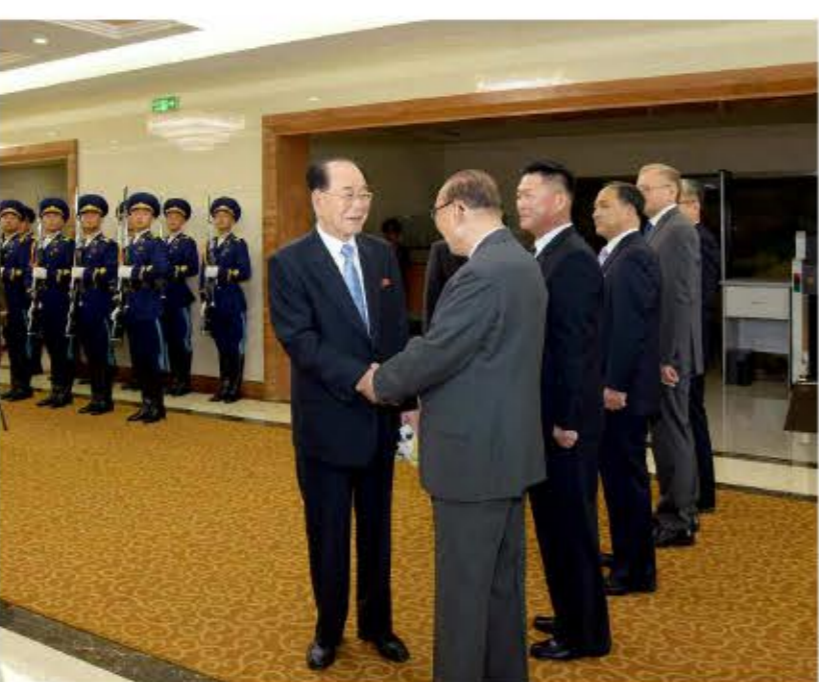
【조선중앙통신】

김영남동지가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개막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

【평양 6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로제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국제축구연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개막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12일 오전 평양을 출발하였다.

김영남동지를 환송하는 의식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있었다.

김영남동지와 일행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외무성 부상 리길성동지와 알렉산드르 마케고라 주조 로제야연방 특명전권대사, 장승강 중화인민공화국 임시대리대사가 전송하였다.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는데 모를 박고 해산기 초식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진 해산기초식품공장의 모습이 최근에 많이 달라지고있다.

공장에서는 지난 몇해동안에 자체의 힘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 표식비를 새롭게 일떠세우고 연혁소개실과 문화건설실을 비롯한 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려놓았다. 또한 2층으로 된 사적건물의 내부를 완전히 일신시키고 당의 구조물과 5대교양적관람들을 제시하여 공장인원을 하나의 교양거점으로 전환시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조직들은 사상사업을 자기단위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진행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공장에 임명된 박승철초급당위원장은 공장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새로 건립하는 사업을 내밀기로 결심하였다.

물론 여성들이 많은 공장조건에서 짧은 기간에 공사를 끝낸다는것이 어려울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가

슴마더에 령도업적단위의 종업원이 라는 긍지와 영예감을 심어줄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것이다.

이런 투철한 각오를 안고 초급당원군은 현지지도표식비를 건립하기 위한 투쟁으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공장의 인군들과 종업원들은 합리적인 공방을 받아들이며 복방의 강추위속에서도 기초파기와 콘크리트 타일 등 제기되는 파제를 파감히 해결하였다.

송애숙지배인을 비롯한 인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의 앞세를 메고 밤이 깊도록 뛰어나다녔다.

공사가 힘든 고비에 들어갈 때도 않았다.

그때마다 초급당원군은 종업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있어 항일의 녀루사들도 평범한 여성들이었지만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열전만 리, 사나운 눈보라를 뚫고헤치며 만년을 이겨내고 끝내 조국해방을 안아왔다고 하면서 여성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배두의 혁명정신, 배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악시해주었다.

이렇게 되어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빠른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훌륭히 건립하였다.

이들 계기로 초급당원군들은 대중의 정신풍발흥을 위한 사상교양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욱 절감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사상을 위력한 무기로 들어주고 대중의 정신풍을 총폭발시킬 때 공장의 면모를 령도업적단위있게 일신시킬수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을 더욱 박력있게 밀고나갔다.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짜고든 사실을 놓고보자.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당대표들에서 연혁소개실장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였다.

그 실패는 컸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5월 공장에 찾아오시어 현장

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작업모습도 보여주며 태양열에 의한 장속성망 빛도 몸소 가르쳐주신 어버이사형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마다에 깊이 새기며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갈 불같은 임정을 토로하였다. 또한 전세계 로력혁신자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누구나 혁신자가 될 줄은 결의를 다졌다.

령도업적단위당원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과정에 사상의 강자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된 종업원들은 기술혁명수행에서도 큰 역할을 내걸고있다.

공장의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이 지닌 본분을 자각하고 방공공업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의 방주속에 완성한 컴퓨터에 의한 자동은습도수감조종체계와 온냉방장치를 장적업원의 독자생산공정에 도입하여 목적실의 무궁무진화를 위한 기술적도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최근에는 공유유생산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전투에서도 성과를 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채인철

